누가 말을 하게 하고

누가 가고 오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자기의 근본 믿지 않을 수 없어



그림 · 최주현

☞ 25면에서 계속

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깐 놔버리라는 건 어디다 놔버리라고 하는 거냐하면 알고 있는 자기가 바로 공했다 이거죠. 체도 없고 빛깔도 없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그건 부정 못할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놔버려라 이거야.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언짢은 일 좋은 일을 보는 거고, 그 좋은 일 언짢은 일 다 한데 합쳐서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고달프다 고달프지 않다, 좋다 즐겁다, 나는 못살겠다 나는 괴롭다, 주먹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도 잘 알아요. 자기가 한해, 24시간 걸어오는 거를 자기가 너무도 잘 알죠, 남은 몰라도.

자기가 알고있는 그 생명수와 같은 자기 에너지가 전체의, 나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다 있으니 만큼 그 에너지는 차이점이 나질 않죠. 그래서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포착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용' 이라고 하죠. 자기가 진짜로 자기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걸 책정해서 아는 그놈이, 그놈이 컴퓨터 전체 모든 걸 하고 있거든. 오관을 통해서 컴퓨터처럼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바로 탐지기도 텔레파시도 통신도 무전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고놈이. 내가 나쁜 거 좋은 거, 일한 거 말한 거 하루 24시간 걸어온 거를 저녁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하는 고놈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고놈, 한놈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벌써 그 여러 가지 한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거죠. 알고 있는 고놈이 바로 주인공이자,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겁니다. 부착돼 있으니까, 내 몸에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 근본처 그 주처가 바로 누구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주처에서 24시간 여러 가지 하고 왔지 않느냐? 주처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왔지 않느냐? 행을 하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겁 전서부터 나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계를 올릴 수 있는 바로 내 조상이자 바로 자아 부처, 원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주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심주라고 해도 좋고 마음의 주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뜻만 알면. 그래서 벌레가 나방이 될 때도 벌레가 생각을 고렇게 했기 때문에 끌고 간거죠, 나방으로… 그렇듯이 사람도 이날까지 억겁을 거쳐오면서 화해서 낳고 질척질척한 데서 낳고, 태로 낳고 알로 낳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고등동물로서 화하게 된 거죠.

부모님과 부딪치는 일이…

문 저는 무남독녀 외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성주이 급하고 저에게 많은 걱정을 끼칩니다. 여지껏 저는 어머니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폐를 끼쳐드린 적이 없는 모범적인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외딸이라서 혜택받는 일이 있지만 자기감정을 삭이고 해야될 말 안 해야될 말을 구별해서 하고 이 말을 하면 딸이 걱정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른다운 모습이 없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 말에 동감을 하지 않거나 서운한 말을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도 너두나 불편합니다.

다른 집은 자식이 부모 속을 애태우는데 우리 집은 부모가 자식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자식한테 반찬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 마음을 힘들지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욕심이지요?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저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았으면 하는 나쁜 마음까지 듭니다. 너무도 저를 배려 안하고 언제까지나 다 받아 줄 줄 아는 부모님이 야속합니다. 스님 어떻게 저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제가 전생에 부모님께 마음의 빚을 많이 지어서입니까?

답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부모 자식기간이나 형제간의 인연에 대해서, 끈이 달려서 맺어 있는 게 아니라 탯줄이 붙어 있듯 인연 줄이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속을 썩여도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를 번연히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한 게 없단 얘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든 잘못했든 자식이기 때문에 그다.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밉다 곱다 판단을 한다면, 남편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부모도 못한 잘한다 판단을 한다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내 갈 길이 지금 바쁘고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를 지금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요, 또. 남의 참견까지 할 때가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 그거야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지만

상대가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못 나간다는 내 생각을 돌려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비

한가지가 남는다 거죠. 그 남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의 근본이나 부모의 근본이나 또 모든 여러분의 근본이 다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고, 자식이 보기에 아무리 부모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이니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이니까요.

그래서 그 공한 뜻과 우리가 공생을 하고 있고, 공용으로 공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생활 속에서 공심으로 해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자식이 싫다는 거를 강요하거나, 자식이 반대하는 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잘 돌려서, 어떤 경우라도 잘 돌려서 잘 살게끔 해 주는 것이 부처님 원력이고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가 나는 거죠.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아니야, 그래서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잘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지 그게 아니라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하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밉다 곱다 판단을 한다면, 남편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부모도 못한 잘한다 판단을 한다면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내 갈 길이 지금 바쁘고 나한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를 지금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해요, 또. 남의 참견까지 할 때가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거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어! 그거야 네가 죽인다고 하는 거지만 뭐가 원통해서 못합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고, 승천을 허지 말래도 승천을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죽기 사흘 전에 턱 하니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겠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렇지만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했더라면 인생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쓰린지 고운지 또는 아픈지 그거를 느끼지를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곱게 편하게 자란 사람보다 더 한층 공부를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새끼 벼랑에다가 내리 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꽃이라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무조건 밉고 이쁘고 떠나서,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뼈를 주셨어. 당신의 영혼이 거기에 부합이 되니 삼합이 합쳐서 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인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서 무조건, 이제부터라도 모든 거를 다 그 자리에 맡겨봐. 모든 거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새로운 쇠로서 생산이 돼서 밝게 빛이 날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보면, 진실하게 마음을 가진다면 얼굴도 환하게 필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 건강하시고 꼭 오래 사세요. 딸 노릇을 꼭 할겁니다." 하지는 않고 자기만 힘이 든다는 생각이 어딨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걸 보면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 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런데 그런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오는 거지, 바로 과거에 자기 산대로 닥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죠? 낳아준 은혜, 길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머니가 밉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 관해 드린다면 어머니도 변하시지만 본인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고맙다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내 말을 믿고 꼭 그렇게 해 보세요.

※위 법문은 1993년 1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연 인-
어느새
가을입니다
한가로히 걸어가는
연인들의 어깨위로
나뭇잎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바스락 거리는
낙엽소리
조용히 밟으며
행복한 미소로
멀어져 가고
바람소리도 함께...
이영숙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방문전 전화 약속

> 위 치 안 내 <
1호선 부천역 아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住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288-2944

3일 안에 깨닫는다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칠십(돈오)에 깨치는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도 비약든 테크닉(방편)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생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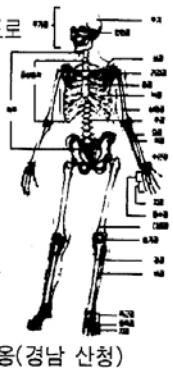
춤바윰 禪林院
033)435-6166, 435-8166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